

노인의 생활환경과 삶의 만족도¹⁾

The Living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Koreans in 2020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는 노인정책의 목표이며, 상당수의 노인이 희망하는 노후의 모습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약 70%는 건강이 악화되어도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집,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과 지역 환경은 노인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협하고 있다. 노인의 65.7%는 평소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이나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며, 낙상노인의 절반은 미끄러운 바닥, 도로나 문턱 등의 부적절한 환경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은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서 노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이전 조사에 비해 상향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노인정책은 AIP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의 현상이며, 많은 국가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인구 고

령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는 인구의 연령별 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비롯하여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년기 연장에 대응하기

1) 이 글은 '이윤경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11장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위한 물질적 노후 준비뿐 아니라 노년기 삶의 풍요로움과 의미 있는 노년기 영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령화 정책에서는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하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AIP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며, 또한 개인에게도 인간이 지니고 있는 친밀감과 안정감의 욕구를 충족시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AIP의 개념은 1982년 유엔 비엔나 국제고령화 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에서 제시되었으며(UN, 1982), 세계보건기구(WHO)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위한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환경의 고령친화성을 제안하였다(주보혜 외, 2019).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AIP의 지향점은 최근 국내 고령화 정책에서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가급여 우선원칙 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약 20개 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김경래, 이윤경, 황남희, 진화영, 2020). AIP는 정책적 지향

점이기도 하지만, 노인의 상당수는 건강이 악화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도 요양시설보다는 생활하던 집, 생활하던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노년생활에 대한 지향점이기도 하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이 희망하고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AIP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노인의 거주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이 글에서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중 노인의 생활환경과 생활만족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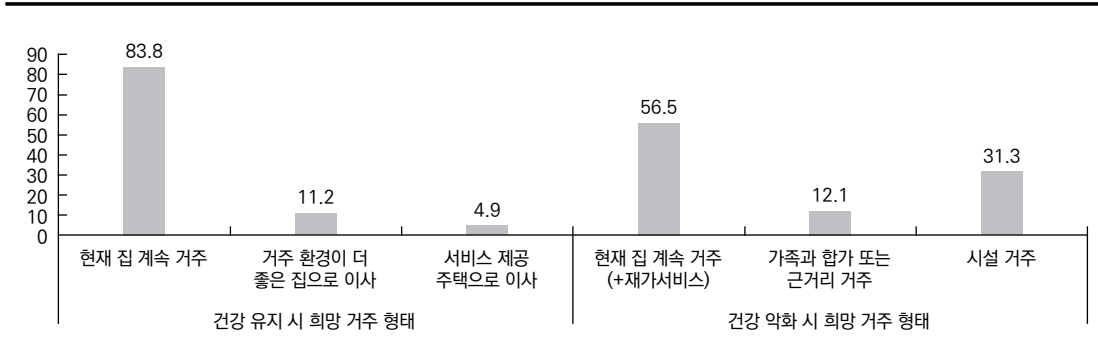
2. 노인의 주거 및 지역사회 거주 환경 실태

가. 거주 주택 및 희망 거주 형태

노년기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택의 고령친화적인 구조와 설비에 따라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생활의 가능성을 높게 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거주 주택 형태는 아파트 48.4%, 연립·다세대 주택 15.1%이며 단독 주택은 35.3%로, 공동 주택 형태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이 63.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단독 주택 거주 비율이 48.8%이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이 35.1%와 14.6%인 것과 비교하면 단독 주택의

그림 1. 노인(65세 이상)의 건강상태에 따른 희망 거주 형태

(단위: %)



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74-578, <표 11-16>과 <표 11-17> 일부 도식화.

비중이 감소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 도시 지역(동부) 거주 노인의 경우 73.0%가 공동 주택 형태에 거주하며, 읍·면부 지역은 65.9%가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른 거주 주택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생활편리성을 살펴보면,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가 8.9%,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 없음'이 71.3%,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이 19.8%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비중이 13.7%포인트로 크게 증가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노인의 대다수는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계속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거주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 유지 시와 건강 악화 시에 희망하는 거주 형태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강이

유지될 경우에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83.8%이며,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11.2%이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예, 노인주택 등)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는 변화를 보인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31.3%,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56.5%, '가족과 합가 또는 근거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12.1%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거주 희망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1인 가구일 경우, 현재 신체적 기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건강이 악화될 경우 노인요양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31.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 노인의 거주 지역사회 환경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생활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와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인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로 일상용품 구매 장소, 보건의료기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복지, 대중교통 정류장, 공원에 대한 거주지와의 거리를 통해 접근성을 파악하였다.

노인의 거주지와 생활 시설 인프라의 거리는 도시 지역(동부)과 읍·면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경우 일상용품 구매 장소, 보건의료기관, 주민센터, 공원, 대중교통 정류장의

경우 95% 이상이 도보 30분 이내에 위치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80% 이상이 도보 30분 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도시 지역(동부)에 비해 모든 시설과의 접근성이 낮으며, 도보 30분 이상의 비중은 일상용품 구매 장소는 19.9%, 보건의료기관은 26.7%, 주민센터는 29.3%, 노인복지관 36.8%, 사회복지관 등 37.8%, 대중교통 정류장 5.8%, 공원 5.7%로 나타났다. 읍·면부의 경우 지역 내 생활 인프라와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등 이동수단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도보 10분 이상인 비율이 38.2%, 도보 20분~30분 미만이 7.2%,

표 1. 노인의 주요 기관 및 시설과의 도보 이동 시간: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특성	5분 미만	5분~10분	10분~20분	20분~30분	30분 이상	계	(명)
일상용품 구매 장소	14.3	53.3	21.1	5.7	5.6	100.0	(10,097)
동부	16.6	58.2	20.0	4.2	1.0	100.0	(7,651)
읍·면부	7.2	37.8	24.6	10.5	19.9	100.0	(2,446)
보건의료기관	6.9	35.5	36.7	11.7	9.2	100.0	(10,097)
동부	8.3	39.9	37.6	10.5	3.6	100.0	(7,651)
읍·면부	2.4	21.6	33.8	15.4	26.7	100.0	(2,446)
주민센터	5.2	27.5	37.2	19.3	10.8	100.0	(10,097)
동부	6.0	30.9	39.7	18.6	4.9	100.0	(7,651)
읍·면부	2.8	16.9	29.5	21.5	29.3	100.0	(2,446)
노인복지관	3.9	20.8	30.5	24.8	20.1	100.0	(10,097)
동부	4.3	22.9	32.2	25.9	14.7	100.0	(7,651)
읍·면부	2.7	14.2	24.9	21.4	36.8	100.0	(2,446)
사회복지관 등	3.6	19.1	29.0	25.5	22.8	100.0	(10,097)
동부	4.3	20.9	30.5	26.4	18.0	100.0	(7,651)
읍·면부	1.7	13.5	24.5	22.5	37.8	100.0	(2,446)
버스/지하철 정류장	16.2	54.9	22.8	4.3	1.8	100.0	(10,097)
동부	17.8	56.3	22.0	3.4	0.5	100.0	(7,651)
읍·면부	11.3	50.6	25.2	7.2	5.8	100.0	(2,446)
공원	14.5	47.3	30.7	5.4	2.2	100.0	(10,097)
동부	13.6	49.1	31.6	4.7	1.0	100.0	(7,651)
읍·면부	17.1	41.5	28.0	7.7	5.7	100.0	(2,446)

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61. (표 11-7).

30분 이상이 5.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필요로 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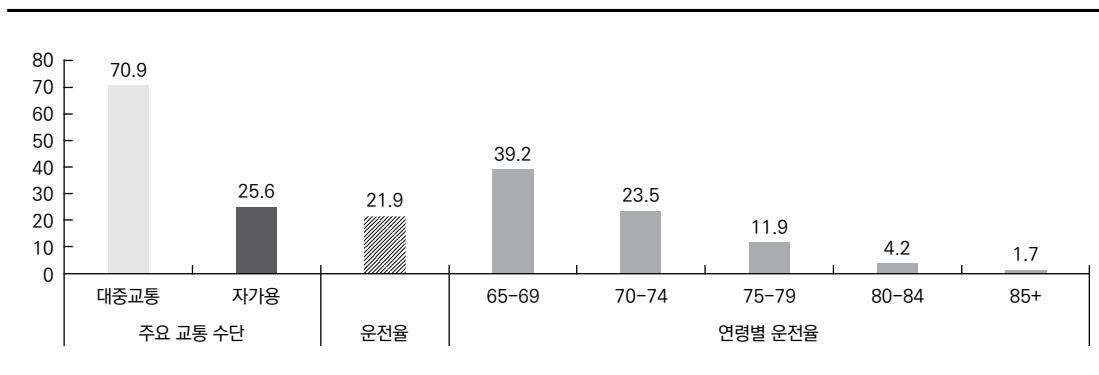
노년기에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집 밖 활동과 타인과의 접촉이 감소하며, 특히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 환경이 고령친화적이지 못할 경우 노인의 이동권은 제한을 받게 된다.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이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이 70.9%, 자가용은 25.6%이며,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1.1%와 1.4%로 나타났다.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못한 읍·면 지역의 경우 자가용 이용이 29.2%, 오토바이가 4.6%로 동부의 24.5%, 0.4%에 비해 높게 나타나 대중

교통보다는 개인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연령집단(85세 이상),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자가용 이용 비율과 택시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65~69세), 남자,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용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인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운전이 사회적으로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이들 사건 사고가 언론에서도 부각되고 있다.²⁾ 자가용이 확대되는 시기에 운전을 시작한 현재의 젊은 노인층을 중심으로 노년기에도 계속 운전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노인의 21.9%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 경험은 있으나

그림 2. 노인의 외출 시 주요 교통수단 및 운전 현황

(단위: %)



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90. <표 11-27>과 p. 593. <표 11-29> 일부 도식화.

2) MBC 뉴스 (2021. 2. 28.).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44% 증가 ... 치사율은 1.8배.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103754_34908.html에서 2021. 9. 1. 인출.

현재는 하지 않는 비율은 17.8%, 평생 운전을 한 적 없는 비율이 60.4%로 나타났다. 현재 운전 비율은 남자 41.5%, 여자는 7.1%이며, 65~69세는 39.2%, 70~74세 23.5%, 75~79세 11.9%, 80~84세와 85세 이상에서는 각 5%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운전을 하는 비율은 3.1%포인트 높아졌으며, 운전을 그만둔 평균 나이는 65.8세로 2017년 62.1세에 비해 약 3.7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 운전을 하지 않는 비율은 여자 노인의 경우는 86.7%이며, 65~69세에서는 49.2%, 70~74세는 56.3%이고, 75~79세는 64.0%, 80~84세는 75.6%, 85세 이상은 85.1%로 점차 높아진다.

또한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의 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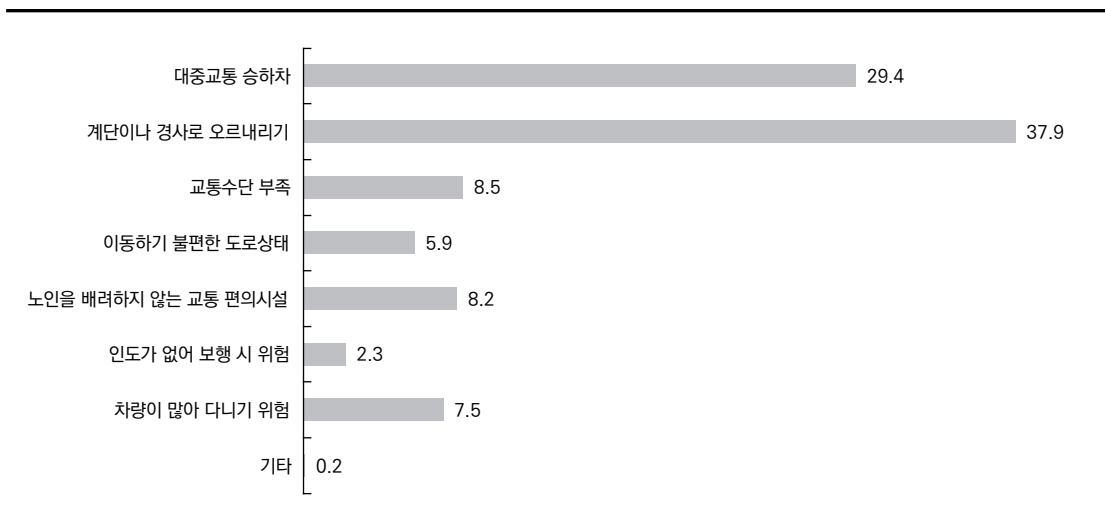
유지율은 55.3%인데, 연령별로는 65~69세는 77.2%, 70~74세는 53.8%, 75~79세는 33.1%, 80~84세는 17.2%, 85세 이상은 1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는 52.9%, 읍·면부는 63.5%로 나타났다.

향후 점차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과거에 비해 젊은 때부터 운전을 하며 자가용 소유자가 증가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해지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운전을 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지역사회 인프라와 거리가 멀 경우 노인은 운전이 어려움이 있어도 운전을 유지하게 되는 위험 상황이 초래된다.

현재 운전을 하는 노인 중 13.8%는 운전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읍·면부 지역

그림 3. 노인의 외출 시 불편 사항

(단위: %)



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91. <표 11-28> 일부 도식화.

의 경우 16.0%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5세 이상의 고연령에서는 20% 이상이 운전애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이 운전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은 지역의 교통 및 환경이 고령친화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인이 평소 외출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은 65.7%이며, 34.3%는 불편함이 없다고 하였다. 노인이 평소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 사항에서는 대중교통 타고 내리기 29.4%,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 37.9%, 교통수단 부족 8.5%,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 상태 5.9%,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편의시설 8.2%, 인도가 없어 보행 시 위험 2.3%,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 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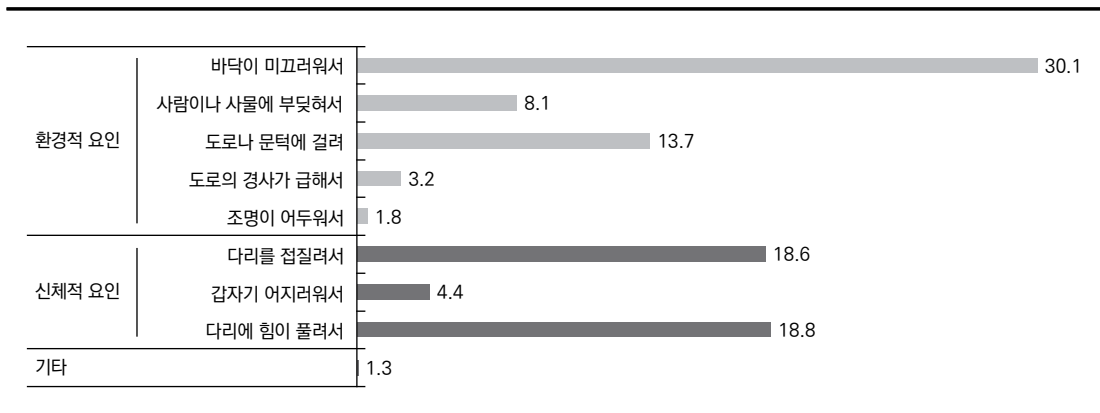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적이지 못한 환경은 낙상과 같은 노인의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7.2%이며, 평균 낙상 경험은 평균 1.6회, 낙상 후 병원 치료율은 72.5%로 나타났다. 낙상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13.6%로 평균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는 1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낙상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이 56.9%, 신체적 요인이 41.8%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바닥 미끄러워서 30.1%,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8.1%, 도로나 문턱에 걸려 13.7%, 도로의 경사가 급해서 3.2%, 조명이 어두워서 1.8%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요인으로는 다리를 접질려서 18.6%, 갑자기 어지러워서 4.4%, 다리에 힘이 풀려서 18.8%로 나타났다.

그림 4. 노인의 낙상 주요 원인

(단위: %)



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01. <표 11-33> 일부 도식화.

다. 노인의 연령 차별 경험 및 사회적 존중감에 대한 인식

노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 또한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연령’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문화로 연령주의(ageism)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연령주의란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이윤경 외, 2020. Iversen, Larson, & Solem, 2009, 재인용, p. 60). 노인에게 연령주의는 노인이라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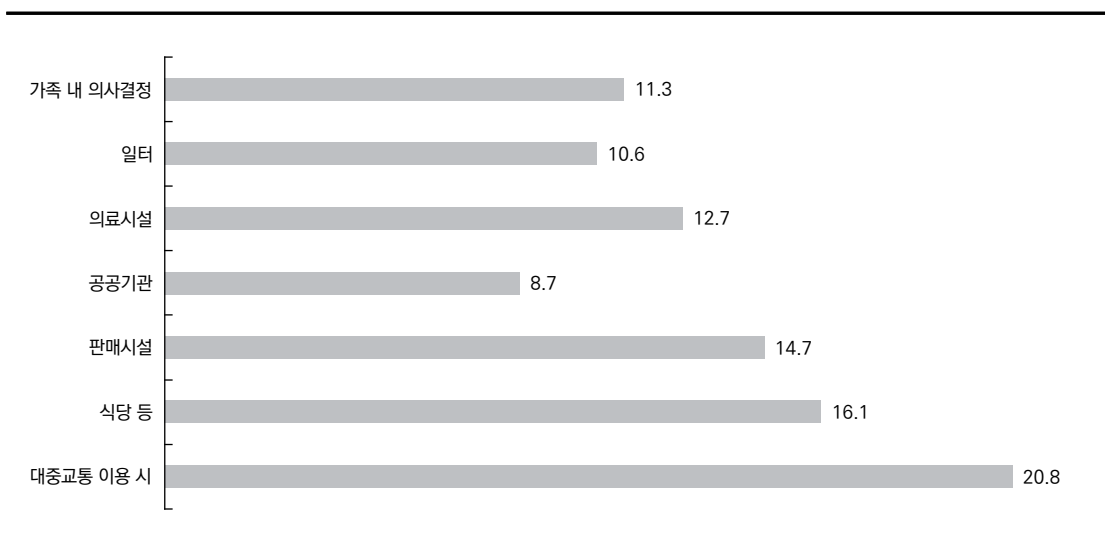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노인 차별 경험 실태를 파악하였다. 노인 차별의 경험은 대중교통 이용 시, 식당이나 커피숍, 판매시설, 의료시설, 일터, 공공기관, 가족 내와 사회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차별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여 20.8%로 나타났으며, 식당이나 커피숍 16.1%, 판매시설 이용 시 14.7%, 의료시설 이용 시 12.7%, 일터 10.6%, 공공기관 이용 시 8.7%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내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할 때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11.3%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연령 차별이 사회 곳곳에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는 상반되는 노인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

그림 5. 노인의 연령 차별 경험률

(단위: %)



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12. <표 11-38> 일부 도식화.

증감에 대한 조사 결과 노인의 33.8%는 긍정적 동의를 하였으며, 27.3%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동의의 비율이 부정적 인식에 비해 6.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감에 대한 인식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3. 노인의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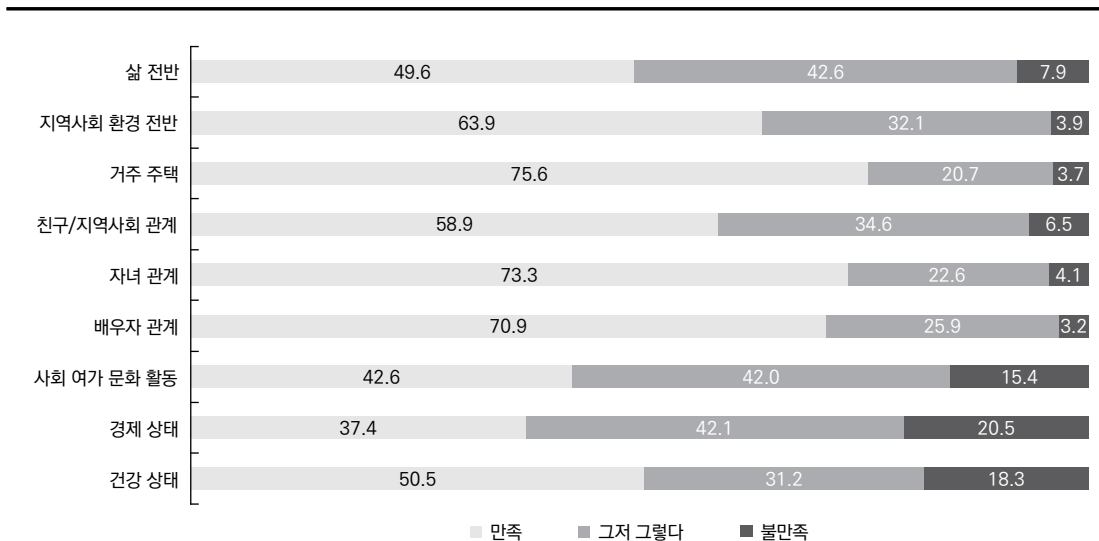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개별적 만족도와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로 파악하였다. 전반적 삶에

대해서는 49.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가 42.6%, 불만족은 7.9%로 나타났다. 영역별 만족도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 또한 63.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배우자, 자녀에 대한 만족 비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다소 낮은 58.9%로 나타났다.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가족 및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비

그림 6. 노인의 생활만족도

(단위: %)



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57. <표 11-5>, p. 562. <표 11-8>, p. 626. <표 11-47> 도식화.

율은 37.4%이며, 사회 여가 문화 활동은 42.6%, 건강상태는 50.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타 영역의 만족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영역의 만족도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의 만족도는 2014년에 비해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가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건강상태의 경우 2014년에는 노인의 29.5%가 만족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50.5%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상태는 2014년 15.2%에서 2020년 37.4%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사회 여가 문화 활동은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여가 문화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 외의 배우자, 자녀, 친구/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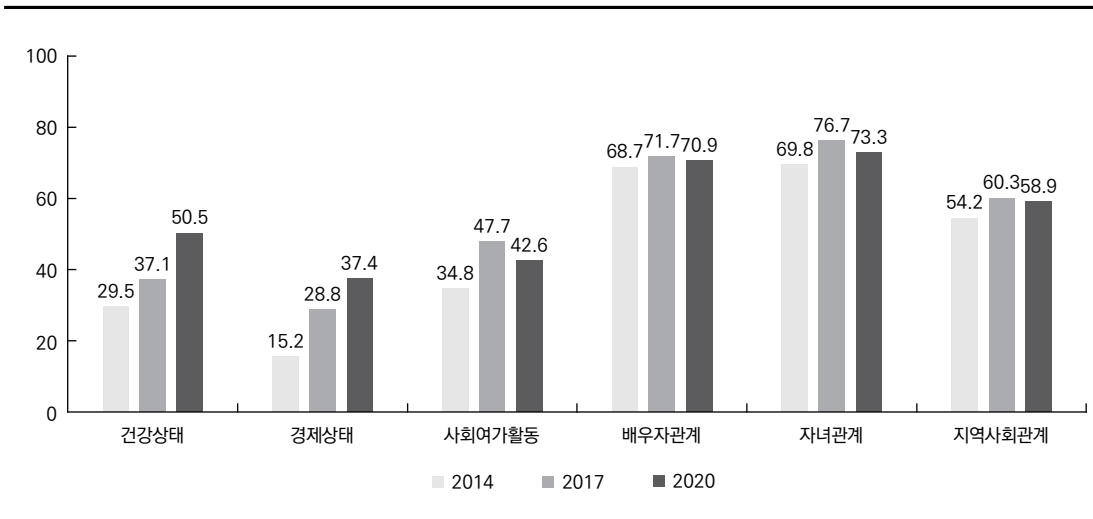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전쟁 이후 출생자인 새로운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면서 이전 노인층에 비해 건강하고 재산과 소득이 높은 층이 노인층에 진입하였고, 또한 기초연금, 건강증진 제도 등 사회정책이 확대되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4. 나가며: 연구의 함의 및 마무리

이 글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내용 중 노인

그림 7. 노인(65세 이상)의 삶의 만족도

(단위: %)



자료: 정경희 외.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37. <그림 13-17> 재작성.
이윤경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57. <표 11-47> 도식화.

의 생활환경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AIP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노인의 상당수는 건강이 유지되었을 때뿐 아니라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시설이 아닌 현재의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정책의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AIP는 정책적 목표이면서 노인 개인의 강력한 욕구임을 다시금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AIP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 외의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정책을 비롯하여 고령자 주거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둘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함께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집이라는 주거공간 뿐 아니라 집 밖의 도로, 건물 등의 물리적 환경이 고령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주거공간에서 노인을 배려한 구조, 설치 등이 증가하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노인의 3분의 2는 외출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상의 절반가량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지역에서 안전한 외출과 생활을 위해서는 실내 주거공간과 실외 환경에서의 안전과 편리를 고려한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은 대중교통을 비롯한 민간, 공공기관과 시설, 그리고 가정에서도 노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고령친화성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포용적이고 통합적 사회문화의 조성을 필요로 한다.

셋째, 노인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약 3분의 2는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운전율은 과거에 비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더욱이 노인 운전자 중 일부는 운전 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운전을 계속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동에서의 어려움, 불편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 마련된 이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제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생활 편의 인프라 차이로 인한 생활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경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생활 편의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낮다. 이로 인해 농어촌 노인의 경우 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에서 이용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 특히 건강이 악화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 지역에서 계속 거주가 어렵게 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른 노후 생활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한 지역별 노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괄목할 만한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며, 향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주보혜, 남궁은하, ..., 정윤경.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N. (1982). Report of the World Assembly on Aging. Retrieved from <https://www.un.org/esa/socdev/aging/documents/Resources/VIPEE-English.pdf>에서 2021. 7. 20. 인출.

주보혜, 임정미, 노법래, 신영규, 임새아, 정희선. (2019). 국제기구와 주요 선형국가의 고령

화 대응 정책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경래, 이윤경, 황남희, 진화영. (2020). 고령친화 커뮤니티의 공간적 개선방안 연구: 고령자 복지 법제도·정책상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MBC 뉴스. (2021. 2. 28.).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44% 증가 ... 치사율은 1.8배.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103754_34908.html에서 2021. 9. 1. 인출.

The Living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Koreans in 2020

Lee Yunky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ging in place (AIP) is the goal of the elderly policy. It is what many elderly people want in their old age. Finding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2020 suggest that about 70% of the elderly hope to live in their own homes or places that are not a nursing facility, even if their health deteriorates. However, housing and local environments threaten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the elderly. 65.7% of the elderly feel discomfort due to using public transportation or using stairs or ramps when going out, and half of the elderly who fell are due to inappropriate environments such as slippery floors, roads or threshold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lderly experience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in various spaces and situations. Nevertheless,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showed a positive change overall, and in particular, the satisfaction with health and economic status showed an upward result compared to the previous survey. Therefore, future policy for the elderly requires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s well as to create an age-friendly environment in the local community for the realization of AIP.